

인공지능·4차산업혁명 이후

노동이 사라진 세계 대비하라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지음

노동이 사라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소득을 얻게 될까?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겨 굶어 죽게 되지 않을까?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인공지능(AI) 발달, 기계화로 2020년까지 사무·행정 직군에서 화이트칼라 일자리 475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문제 제기가 부쩍 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이 활성화되면 택시기사나 택배 배송기사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인공지능과 경제학의 관계를 연구해온 이노우에 도모히로 박사는 4차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주요 이슈를 주목한다. 그의 책 '2030 고용절벽 시대'는 경제 시스템의 구조와 경제 성장, 고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는 인공 지능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지,

또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모색한다. 책은 2017 일본 신서대상 BEST 10에 입상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현재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자동차 기술은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우리 삶 속으로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다. 맥도날드는 주문받는 직원을 대체할 무인 판매대(키오스크)를 도입 중이고, 미국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은 완전 무인 매장 '아마존 고'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조업의 첨단화, 일본의 로봇 신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공통점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로봇화는 소비자에게 전에 없던 서비스와 산 제품의 혜택을 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산층 붕괴를 초래한다. '순수 기계화 경제'는 기술 대체로 인한 중산층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는 경고다.

"수입이 끊긴 노동자는 유료 상품을 구입하지 못한다. 순수 기계화 경제에 이르러 모든 노동자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노동자는 착취당할 일이 없지는 동시에 굶어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저자는 대안으로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라며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왜 서구 국가들이 이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지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다운북스·1만1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은 자들은 광주 오월에 대해 때로는 시로, 때로는 소설로,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형상화해왔다. 사진은 지난 2016년 5월 구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던 오월문학제 한 장면.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문학은 먼저 간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은 자들의 말

전성욱 지음



"진실은 쉽게 해명될 수 없고, 고통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완료되지 않는다."

광주의 5·18은 이후 한국 현대사를 바꾼 큰 사건이었다. 광주의 오월이 기억으로 보존된 과거의 기념비가 아닌 깨달음이다. 지금도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대답을 강요하는 현재이다.

남은 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광주에 대해 말하려 했으며 증언하려 했다. 더러는 학술적인 글로, 시로, 소설로 광주의 아픔을 형상화해왔다. 비단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도 광주를 그렸다.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는 남은 자들의 슬픔, 문학은 먼저 간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 소설은 그날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남은 자들이 어떻게 오월 광주를 기록했는지 분석한 책이 나왔다. 문학평론가인 전성욱 동아대 한국어학과 교수가 펴낸 '남은 자들의 말'은 문학을 통해 본 광주의 서사정치학이다. 저자는 광주의 오월을 다른 작품 가운데 특히 소설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광주를 소재로 한 문학의 학술적 논의는 대단히 간소했다. 다시 말해 증언이나 저항, 진실, 죄책감 등과 관련해 분석한 나머지 미학적 부분은 등한시했다.

이 책은 광주에 관한 소설 작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저서들과 차별된다. 전 교수는 5월 광주를 다른 작품을 '재현의 기획'과 '표현의 기획'으로 구분한다. 전자에서 강조되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과 민중 수난의 역사다. 대체로 희생의 숭고함에 대한 비장한 감수성이 기저에 깔려 있다. 가해의 난폭함과 희생의 비참함이 강조된다. 당연히 희생은 역사적 차원에서 영웅화되고 이념적 차원에서 신격화된다.

반면 후자는 정치적 견해의 노출보다는 역사의 기억과 재현의 가능성을 탐문한다. 미학적이며 정서적 실재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저자는 상찬을 받은 임철우의 '불남'이 '재현의 기획'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말한다. 작가에게 과도한 죄책감이 부과된 나머지 진실 복원의 강박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정찬의 '광야'와 '슬픔의 노래'는 언어에 대한 예민

한 자의식으로, 진실에 대한 '표현' 열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이밖에 김신운의 '자극히 작은 자 하나'와 '청동조서'는 서사적 기교를 통해 '재현'을 넘어서려는 '표현'의 의지가 담긴 작품으로 언급한다. 박승희의 '그림 무얼 부르지'는 진실의 형이상학을 질문의 형식으로 내파하는 작품이다.

저자는 남은 자들은 결코 그 사건에 가담할 수 없다고 본다. 죽은 자들에 공감하거나 그들을 대신해 증언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황된 의욕이지만, 그럼에도 남아 있는 자들은 문학으로써 그 허황된 의욕을 무릅쓰고라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은 자들의 말은 먼저 간 자들이 남긴 흔적에 가까스로 닿을 수 있다. 먼저 간 자들과의 연합은, 그렇게 남은 자들의 무능한 열정에 힘입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라고 남았다." <오월의 봄·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책이 있는 곳에 여행이 있다



여행과 독서

한홍조 지음

여행과 독서는 꽤 상당부분 닮아 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직접 가서 경험하느냐,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경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일반적인 독서는 여행을 떠나기 오래 전 시작된다. 어느 때는 깨닫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더러는 동시에 시작할 수도 있다.

길을 떠날 때면 반드시 몇 권의 책으로 무장을 하는 독서광이 있다. 타이완 인터넷 포털 사이트 하나인 PChome Online 대표이사인 한홍조가 펴낸 '여행과 독서'

는 책이 있는 곳에 여행이 있다는 지론이 담겨 있다. 책은 2016년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저자는 책 하나에 의지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 책에 적힌 대로 주문을 해보기도 하고, 터키에서는 오로지 책에서 추천하는 음식만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아프리카로 사파리를 떠날 때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에 관한 책을 챙기고, 인도를 다녀오고 나서는 양탄자 상인이 페르시아어로 읊어주던 오마르 하이야의 시를 찾아 보기도 한다.

저자는 유한한 '인생'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여행'과 '독서'라고 본다. 다시 말해 인생을 확장해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3대에 걸친 원폭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



홍터의 꽃

김국숙 지음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원폭 투하로 일본은 항복했고, 조선은 해방됐다.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와 관련해 그 정도만을 떠올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방의 기쁨에 가려진 참극이...

히로시마 원폭 당시 피해를 입은 조선

이 무려 7만 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폭 피해자가 있는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누구도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원전발전도는 세계 1위다. 국토 면적을 감안할 때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김국숙 작가가 펴낸 '홍터의 꽃'은 삼대에 걸친 원폭 피해자 일가족 이야기를 통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다룬다. 일제 감청기 몰락한 함천 농민 강순구는 먹고 살기 위해 히로시마로 이주해 거주한다.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삶을 꾸려가던 그는, 그러나 원폭 피폭 앞에서 무참히 무너진다.

<새움·1만42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불안을 욕망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



히스테리

장다비드 나지오 지음

"히스테리는 자신의 내부 대상도 바깥 세계의 대상도 절대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체적인 현실을 환상의 현실로 변형시킨다."

히스테리에 빠진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데서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히스테리에 묶인

사람들은 주어진 행복도 망가뜨리고 충족도 바로 차버린다. 왜 그럴까?

아르헨티나 출신 프랑스 정신분석가 장-다비드 나지오는 '히스테리'에서 히스테리는 '불안을 욕망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히스테리는 예민한 감각과 식별력으로 타자의 아주 작은 결점이나 나약함의 검색, 그의 욕망을 드러내는 아주 작은 단서를 탐지한다."

히스테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비장애인 과 장애인,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진 힘을 바라보며 사랑과 미움의 관계에 빠져든다.

<한동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판넬시공

집크시공
케뮤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010-8628-0482

광주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